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V

KBS교향악단 X 바딤 글루즈만

# VADIM GLUZMAN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022. 9. 8. THU 20:00** 롯데콘서트홀

지휘 니콜라스 네겔레 바이올린 바딤 글루즈만

© Marco Baggiani

KBS  교향악단

# 확 바뀐 유튜브

지금  YouTube 구독하고,  
매월 R석 공연 티켓을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세요!



스토리 오브 클래식

몰입감이 남다른 나만의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최고의 플레이

공연 중 가장 멋진 순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드라마 오브 클래식

KBS드라마와 KBS교향악단의 운명적인 콜라보



디지털 K-Hall

생생한 KBS교향악단 실황 영상



Nice To Matthew!

단원과 지휘자가 직접 얘기하는 공연 프로그램 해석



**모차르트**  
W. A. Mozart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216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 24min

- 1악장** 빠르게  
Allegro (9')
- 2악장** 침착하고 느리게  
Adagio (9')
- 3악장** 론도. 빠르게  
Rondo. Allegro (6')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min

**모차르트**  
W. A. Mozart

〈돈 조반니〉서곡, K.527  
<Don Giovanni> Overture, K.527

⌚ 7min

**브람스**  
J. Brahms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77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 38min

- 1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Allegro non troppo (21')
- 2악장** 느리게  
Adagio (9')
- 3악장** 빠르고 익살스럽게;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게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 (8')

Profile

**VADIM GLUZMAN**



# 바딤 글루즈만

Violin

## “매혹적이고 달콤한 음색, 눈부신 음악성”

영국 BBC 매거진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바딤 글루즈만은 찬란했던 19,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의 전통을 생생하게 구현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무대 위에서 청중들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독점 계약한 BIS 레이블에서 발매한 음반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들과 꾸준히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 비르투오지 체임버 오케스트라,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빈 체임버 오케스트라, 프란츠 리스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실내악 그룹을 이끌어온 그는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탄탄한 커리어를 자랑한다. 라비니아, 탕글우드, 그랜트 파크, 콜마르 등 다수의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 객원 연주자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아내이자 리사이틀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안젤라 요프와 함께 시카고 노스 쇼어 체임버 음악 페스티벌을 창시하기도 했다.

바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그의 음반들은 디아파종 도르 ‘올해의 음반상’,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 쇼크 드 클라시카 상 등을 수상하며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볼티모어의 피바디 콘서바토리에서 우수 상주 음악가로 활동하며 젊은 음악가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으며, 시카고 스트라디바리 소사이어티로부터 1690년에 제작된 ‘엑스-레오폴드 아우어’ 스트라디바리를 지원받아 연주하고 있다.

# Nikolas Nägele



## 니콜라스 네겔레 Conductor

“드높은 열정과 안정적인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지휘자”

*이탈리아 예술 전문 잡지 L'ape musicale*

독일 태생의 지휘자 니콜라스 네겔레는 뮌헨 국립음대 및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와 피아노, 클라리넷을 전공했다. 2012년 제임스 콘론 지휘상과 2013년 아스펜 페스티벌 지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2017년부터 약 3년간 베를린 도이치 오퍼의 음악감독(Kapellmeister)으로 활약하며 〈박쥐〉,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의 오페라를 지휘했다.

지난 1월,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신년음악회 지휘로 한 해를 시작한 그는 이어 이탈리아 베로나 필하모니코 극장에서 로시니의 〈비단 사다리〉를 지휘했고, 토리노 왕립 극장에서 살리에리의 〈질투의 학교〉, 라이프치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이끄는 등 활발한 지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참여해 피에타리 잉키넨과 함께 바그너 〈반지〉의 신규 프로덕션을 지휘했고, 같은 해 라벨로 음악 페스티벌에서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와 함께하는 갈라 공연을 지휘했다. 또한 2017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부지휘자로서 오페라 〈발퀴레〉를 지휘한 그는 이듬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도 크리스티안 틸레만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부지휘자로 활약했다. 2017년 마르티나 프랑카 음악 페스티벌에서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 무대로 이탈리아 데뷔를 치렀으며, 아스펜 음악 페스티벌에서 멘토인 로버트 스파노의 부지휘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216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작곡연도 1775년

초 연 미상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호른2, 현5부

연주시간 약 24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27개나 되는 데 비해 그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의 수는 훨씬 적은 8곡 정도로 알려져 있다. 첫 다섯 작품은 1775년 4월부터 12월 사이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되었으며, 1776년에 작곡된 협주곡 제6번 E<sup>b</sup> 장조, 유작인 협주곡 제7번 D장조, 여기에 11세 때 쓴 이른바 ‘아델라이드 협주곡’도 있다. 그러나 6번 이후의 작품들은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는 관계로 현재는 1번부터 5번에 이르는 이른바 ‘잘츠부르크 협주곡’이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다.

오늘 만나보게 될 바이올린 협주곡 G장조는 잘츠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세 번째 작품으로, 이 곡을 완성할 당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대주교의 악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고용된 상태였던 모차르트는 이 악기를 위한 작품을 써야 할 때가 됐다고 느꼈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확고한 의도를 갖고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착수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은 이전에 작곡한 세레나데나 디베르티멘토에 비해 바이올리니스트한 기교가 돋보이지 않지만, 작곡가는 이 작품을 통해 ‘완성된 거장’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모차르트가 작곡에 접근하는 방식은 명랑하고 떠들썩한데,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에는 이러한 모차르트의 예술적 지성과 활발한 감성의 결합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설계 면에서 이 작품은 안정성의 귀감이 되어주는데, 반복부와 삽입부가 규칙적으로 바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된다. 이는 음악적인 구조에 대한 그의 탁월한 이해를 보여준다.

## Program Note

음악학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은 전작인 제2번 협주곡과 비교해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모차르트의 음악언어에 새로운 깊이와 풍성함이 생겼다. 특히 2악장 아다지오에서는 두 대의 오보에가 이례적으로 두 대의 플루트로 대체되면서 고귀한 인상을 창조한다.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며,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이 새롭고 친밀한 관계로 접어든다. 모차르트의 작품 생애에서 이 협주곡의 등장만큼 기적적인 경우는 없다. 당시 그는 작곡가로서 최고의 성장기였다.”

2악장 아다지오에서 모차르트는 두 대의 오보에를 두 대의 플루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모차르트 시대의 연주자들은 오보에와 플루트 두 악기에 동시에 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길게 지속되는 독주 바이올린의 주요 선율과 그에 반해 속삭이는 듯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대조되는 가운데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가 곁들여진다.

피날레는 프랑스 스타일이 느껴지는 3박자 론도 형식으로, 처음과 끝에 위치한 쾌활한 반복구는 누그러지듯 사라지며 오보에와 호른의 짧은 악구로 이어진다. 3악장에는 총 3개의 삽입부가 있는데, 처음 두 개는 반복되는 악구인 반면, 세 번째 에피소드는 g단조 안단테로 시작해 현악기의 피치카토를 통해 전원의 춤곡을 연상시키는 명량한 알레그레토로 이행한다. 모차르트의 다양한 작곡 스타일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그가 만년에 피아노 협주곡 장르를 통해 개척하게 되는 완벽한 기교의 마지막 론도와 대조를 이룬다.

# 모차르트

## 〈돈 조반니〉 서곡, K.527

W. A. Mozart  
<Don Giovanni> Overture, K.527

작곡연도 1787년

초 연 1787년 10월 29일 체코 프라하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7분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는 14세기 무렵 스페인의 호색가로 이름을 떨친 전설적인 인물, 돈 후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작인 ‘피가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극작가 로렌초 다 폰테가 대본을 썼다. 돈 후안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다 폰테는 ‘돈 조반니’라는 인물의 성격을 하나의 인간 전형으로 더욱 흥미롭게 형상화했다.

모차르트는 1787년 ‘피가로의 결혼’ 초연을 논의하기 위해 프라하에 갔다가 극장주인 파스쿠알 본디니로부터 신작을 의뢰받는다. 그 뒤 프라하 교외의 별장에서 ‘돈 조반니’의 작곡에 착수했고, 프라하 초연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빈에서 상연했으나 보다 보수적이던 빈 사람들은 작품 속 자유분방한 사랑과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나 '마술피리'와 마찬가지로 '돈 조반니' 서곡 역시 오페라 서곡 중의 명곡으로 손꼽힌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일화 중 하나로, 초연 전날 불과 3시간 만에 서곡을 완성해 초연 무대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 되어서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에게 악보가 전달되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페라의 후반, 석상이 나타나는 절정부에서의 어두운 주제를 서곡에 차용하여 죽음의 마성이 이글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에로스에 닿아있는 타나토스의 어둠, '돈 조반니'의 클라이맥스를 예상하며 듣게 되는 서곡이다.



##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77

J.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작곡연도 1878년

초 연 1879년 1월 1일 독일 라이프치히

편 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8분

피아노 연주의 대가였던 브람스는 내성적이면서도 깊이감을 가진 피아노 작품들로 유명하다. 그는 오페라를 제외한 많은 분야에 걸쳐 뛰어난 명작을 남겼지만, 특이하게도 바이올린 협주곡은 오직 한 곡만을 작곡했다.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베토벤과 멘델스존, 차이콥스키의 작품과 더불어 소위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손꼽힐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베토벤과 차이콥스키 역시 각자 하나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겼으며, 모두 D장조의 조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1879년 1월 1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초연에서 브람스는 스스로 지휘봉을 잡았다. 독주는 이 곡을 헌정한 대상이자 오랜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이 맡았다. 브람스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으나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그리 능숙하지 않았기에 요아힘에게 여러 기술적인 조언을 받았다.

## Program Note

1878년, 46세의 브람스는 오스트리아 남부 케른텐 주에 있는 휴양지인 피르차흐에서 여름을 보내며 이 곡을 작곡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는 케른텐의 풍광에 대한 작곡가의 애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년 여름에 같은 곳에서 작곡한 교향곡 제2번을 떠올리게 한다. 당대의 음악 평론가로 브람스와 절친했던 에두아르트 한슬리크는 이 곡에서 봄에 활짝 피어나는 대지의 소리를 들었다고 썼다. 브람스는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긴 산책에서 영감을 얻곤 했는데, 그는 “케른텐에서는 선율이 너무나 많이 흘러 다니기 때문에 발로 밟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정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1악장의 첫머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는 잠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다. 바순,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서주에서 제1주제의 동기를 제시하면 오보에가 적절한 표정의 선율을 연주하며 단조로 조바꿈되고, 다시 D장조로 바뀌어 오케스트라 전체가 제1주제를 연주하며 긴박감이 고조된다. 이윽고 새로운 선율과 함께 현악기들이 대위법적으로 얽히며 아름답고 여러게 사라지고, 이내 선 굵고 견실하면서 격정적인 독주 바이올린이 등장한다. 다양한 변화를 함축한 주제에 이어 목가풍의 제1주제가 거대하게 발전하고, 독주 바이올린의 화려한 카덴차 이후 코다로 막을 내린다.

목관의 따뜻한 선율로 시작하는 2악장 역시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먼저 관악기군에 의해 조용하고 우아하게 시작되는 가운데 애수가 흐르는 오보에의 선율이 떠오른다. 솔리스트는 독주를 시작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는 이 부분에 대해 “이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는 긴 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든 채 무대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참기 어렵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이윽고 독주 바이올린이 높이 날아오르는 선율을 이어받아 금욕적인 애수와 열정적인 감정 분출 사이로 교묘하게 이끌어간다. 꿈처럼 담담한 화성을 바탕으로 점입가경의 모습이 펼쳐지는 대목이다.

3악장은 불규칙한 론도 형식으로, 풍부한 색채감을 가진 집시풍의 선율이 특징이다. 변화무쌍한 리듬을 타고 솔리스트가 난도 높은 기교를 펼치는 가운데, 3악장이 끝날 무렵 새롭게 생겨나는 활력의 움직임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자극하며 점점 빨라지고 고조된다. 이내 헝가리풍의 3개의 어울림음을 통해 40여분에 달하는 협주곡이 끝을 맺는다.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연주자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 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



[kbssymphony.org](http://kbssymphony.org)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 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facebook.com/kbssymphony)



[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